

농촌과 도시지역 주민간 지역사회 친밀도 비교 연구

박경철 · 김성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A Comparative Study on Community Attachment between Rural and Urban Communities in Korea

Kyong Cheol Park · Sung Soo Kim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the community attachment between rural and urban communities, and suggest directions for community development plans of rural and urban communities in Korea.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two communities(n=285), one from Gochang county representing rural community, located in Jeonbuk province(n=142), and the other from Suwon city representing urban community located in Gyunggi province(n=143), utilizing questionnair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 1) Community attachmen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rural community than in urban community, and the linear development model was more appropriate to explain the results of the study.
- 2) Community attachment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social bonds, community participation, social trust, community economical activities, and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 3) In general, determinants such as number of acquaintances, pride of cultural heritages, length of residence, trust for local government, good traffic environment, job satisfaction, etc. explained 55.5% in rural and urban communities.

Key Words : Rural, Urban, Community attachment.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역은 지역활성화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이 자립적이고 효율적이며 주민이 함께하는 개발을 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가 중요한 관건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최근의 문제만은 아니며 일찍이 학문적으로는

지역사회개발에서 오랫동안 다루어져 온 내용이기도 하다. UN(1971)에 따르면 지역사회 개발은 지역주민이 정부의 일에 협력을 하면서도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협력하며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즉, 지역사회 개발은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동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나타내는 지역사회 친밀도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지역사회 친밀도 연구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구에 비해 산업화, 도시화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어 도시와 농촌문제를 동시에 큰 부담으로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농촌공동체의 붕괴와 도시주민의 개별화에 대한 계량적 비교 연구의 부족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인구크기와 인구밀도가 다른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창욱(1995)의 연구와 일개 군(郡) 지역만을 대상으로 친밀도를 조사한 한내창·이성전(1999)의 연구, 그리고 시설농업인의 지역사회 친밀도에 관한 한도현(2000)의 연구들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리고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농촌지역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농촌공동체의 해체와 파괴 그리고 도시화의 문제와 견주어 생각해 볼 때 전통적으로 농민들은 도시인과 달리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 생각되어 왔던 농촌지역사회의 친밀도가 현재 도시지역에 비해 얼마나 유효한지, 또는 계속되는 국내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농촌사회의 빠른 붕괴는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에 대한 농촌주민의 친밀도의 하락이 그 한 이유인지에 관한 농촌과 도시 친밀도 비교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포괄하는 지역사회 애착이 지역사회 활동을 향상시킨다면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친밀도 결정변수 연구(한내창·이성전, 1999; Beggs et al., 1996)와 농촌과 도시지역사회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정도의 측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지역사회 정체성 회복,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농촌과 도시가 각기 지역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본 연구가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화, 도시화과정에서 초래되고 있는 농촌공동체의 해체와 도시주민들의 개별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주민의 애착과 참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즉, 농촌과 도시주민들이 각각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의 정도를 비교·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친밀도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들을 조사·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인들은 선형발전 모델과 체제 모델의 틀 속에서 도출된 것이므로 이 두 모델이 본 연구에서 적합한지 아울러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형발전모델(Linear Development Model)

선형발전 모델은 지역사회 크기는 지역사회 친밀도에 독립적인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이론이다(Kasarda와 Janowitz, 1974; Sampson, 1988; Wirth, 1938). 이 이론은 Tönnis, Durkheim, Simmel, Wirth 그리고 Sumner 등의 전통을 이어받아 정립된 관점으로, 사회가 도시화되어 인구 규모가 증가하고 밀도가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행동도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도시화 과정을 공동사회에서 이의사회로의 변화라고 규정한 Tönnis는 농촌을 공동사회(Gemeinschaft)¹⁾로 설명하며 농촌생활의 훌륭한 가치는 농촌사람들 사이의 공동사회가

1) 퇴니스의 게마인샤프트는 흔히 공동체로 번역되기도 하나 그 정확한 의미는 인간 본연의 의지에 기초한 인간관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Durkheim의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에 기초한 현대 도시공동체와 구분하여 일차적 인간관계에 기초한 전통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개념이다(강대기, 2001).

더욱 강하고 생기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즉, 공동사회는 계속적이며, 진실한 공동생활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은 가족관계에서 발견된다고 하는데 게마인사프트적 사회관계의 속성을 거의 전적으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부부관계, 친족간의 관계에서도 출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촌락공동체와 소도시를 규모가 큰 가족으로 보았다. 이와는 반대로 이익사회(*Gesellschaft*)는 외면상의 공동생활에 불과하며 사람들 사이의 응집력과 친밀한 정도를 감소시킨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공동사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이해되며, 이익사회라 함은 기계적인 집합체 내지는 조작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Tönnis, 1963).

이러한 유기적 연대의 중요한 시사점은 계층사프트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익명적 분업관계, 즉 집합적 생존방식으로서의 기능적인 상호의존을 현대사회의 커뮤니티로 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것이다. 즉, 인간결합의 기본적 동기를 물질획득으로 보는 생태학적 접근과 사회체제의 유지를 위한 기능수행이 커뮤니티의 기본이 된다는 구조기능론적 관점을 커뮤니티 이해의 분석틀로 받아들여지게 했다.

결과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규모가 큰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지역사회에 덜 참여적이고 친한 친구가 적고 덜 집중적이고 규모가 작은 지역사회에서 사는 사람보다 정서적 애착을 덜 갖는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사회적 지위, 지역사회 참여, 친교, 정서적 애착은 친밀도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선형발전 모델의 가설을 지지하는데 실패했다(Kasarda & Sampson 1988). Goudy(1990) 또한 Iowa 농촌지역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선형발전 모델의 가설이 지지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선형발전 모델의 주요 변수는 도시화 변수, 즉 인구 크기와 인구 밀도이다.

2. 체제 모델(Systemic Model)

지역사회 친밀도는 인구의 크기와 인구밀도와는 무관하다는 이론이다.²⁾ 대신 친밀도의 정도는 지역의 크기와 인구밀도와는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social position*, 또는 개인특성변인)에 따라 예측된다는 것이다(Stinner, 1990). 즉, 다른 사회적 지위는 지역사회 친밀도에 대한 다른 제한요인과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친밀도를 갖는다. 이 모델을 처음 개발하고 실험한 연구자는 Kasarda와 Janowitz(1974)인데 그들에 따르면 지역사회 친밀도에 영향을 주는 핵심 외생변수(*key exogenous variable*)는 거주기간(*duration of residence*)이라는 것이다. 즉, 이것은 지역의 크기와 독립적으로 장기 거주자는 단기 거주자에 비해 지역사회 친밀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 변수는 지역사회 친밀도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핵심선행변수로 채택되어 왔고 지역사회 친밀도의 가장 강력한 선행변수임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어 왔다(Kasarda and Janowitz, 1974; Sampson, 1988; Brown et al. and Goudy, 1990; Stinner et al. 1990; O'Brien and Hassinger, 1992; Brown 1993; Beggs et al., 1996 한내창·이성진, 1999). 그러나 비록 거주 기간이 Kasarda와 Janowitz(1974), Sampson(1988) 등의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나타났을지라도 다양한 지역사회 친밀도 측정계수에 있어 다른 사회적 지위 변수들이 측정에 중요한 변수로 주목되었다. 그래서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지위 변수들(사회경제적 지위, 가족 생애주기단계(*family life-cycle stage*), 종교, 주택소유 등)이 친밀도 측정 변수로 첨가되었다.

2) 심지어 대도시 지역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소외됐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경험적 연구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Kasarda와 Janowitz (1974), Poplin(1979)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 중에서도 친밀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위 변수는 교육, 수입, 주택소유, SES 등을 포괄하는 사회경제적 신분이다. 이전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사회적 참여 수준과 더 밀접한 비친족 사회적 연결망을 갖는다는 것을 밝혔다(Stinner, 1990). 또한 윤택한 생활을 통해 주변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감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tinner, 1990). 수입, 교육 등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간 이동률이 낮고, 지역적으로 집중된 사회적 그물망 연대를 가지고 있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친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데 반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감정을 갖게 되므로 지역사회에 대한 낮은 친밀도를 보인다(Campbell et al., 1976).

이와 아울러 최근 친밀도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변수가 사회적 연결망이다(한내창·이성전, 1999). 왜냐하면 개인의 사회적 생존은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 속에서 이루어진다. 개인들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 상호작용하고 있는 개인들의 관계망인 이 사회적 연결망은 특정한 사람들과의 오랜 기간에 걸친 친분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연결망은 일상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유효유'로 작용한다. 인간 관계의 연결망은 때로는 가족일수도, 때로는 동창일수도, 혹은 친한 친구일수도 있다(박준식, 1999). 그런데 개인적 친분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비공식적인 연결망은 개인에게 사회적 자원으로써 작용하면서 개인들의 사회적 적응력을 제고시켜 주는 지역사회 생활에서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때론 비난과 간섭의 부담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내 인적 연결망은 다양한 차원으로 중첩되면서 개인

들을 묶어주고 있는 실체이며 개인이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감을 갖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asarda & Janowitz, 1974; Sampson, 1988; Beggs et al., 1996). 또한 개인이 지역사회에서의 비공식적(일차적)인 연결망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연결망은 지역사회 친밀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asarda and Janowitz, 1974; Goudy, 1990; Beggs et al., 1996; Liu et al., 1998; 최창욱, 1995; 한내창·이성전, 1999).

이외에도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적 지향 정도를 형성하는 데는 역사·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한다. 즉, 지역의 역사·사회 문화적 배경 및 유산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한내창·이성전, 1999). 또 지역경제상황(Brown, 1993, Beggs et al., 1996), 지역사회의 이웃과의 환경, 교육환경과 물리적 환경 등 지역사회 구조적 환경도 친밀도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한내창·이성전, 1999).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선정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선형발전 모델의 대표적인 변수는 인구의 크기와 밀도이며 이 모델을 가장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 조사대상은 농촌과 도시간의 비교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특성이 잘 남아있는 고창군과 비교적 도시화가 안정되게 이룩된 수원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 농촌과 도시의 구분은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기준에 따랐으며 조사지역 선정은 이 기준에 맞는 농촌과 도시지역 중 본 연구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을 선택했다. 또한 체제모델 변수는 농촌과 도시 각각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표 1〉 고창군과 수원시의 일반적 개황
(1999년 기준)

항 목	고창군(A)	수원시(B)	B/A
총면적(km ²)	606.887	121.14	0.20
총인구(명)	76,219	912,70	11.97
인구밀도(명/km ²)	125.6	7,534	59.79
전입인구	7,135	252,170	-
전출인구	9,412	207,120	-
순이동(이동률)	-2,277(-2.9)	45,050(5.1)	-

참고: 1) 고창군 통계연보 2000.
2) 수원시 통계연보 2000.

조사설명에 앞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역인 고창군과 수원시에 대해 주요 통계지표를 〈표 1〉을 통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설명했듯 선행발전 모델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인구의 크기와 인구밀도 측면을 살펴보면, 총면적은 고창군이 수원시에 비해 5배 정도로 컸다. 하지만 총인구는 수원시가 약 12배 높았고, 인구밀도는 무려 약 60배 정도로 높았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도시지역의 높은 인구의 크기와 인구밀도를 알 수 있는 수치이다. 또한 이러한 도시집중화 현상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데 농촌지역인 고창군은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더 많아 1999년 기준 당해 인구는 2.9% 줄어들었다. 반면, 도시지역인 수원시는 전입인구가 오히려 늘어나 1999년에는 전체대비 5.1% 증가세를 보였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농촌과 도시의 변화를 두 지역을 통해 극명히 알 수 있다.

2. 조사의 실시

본 연구의 설문은 선행연구를 통해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며 고창군과 수원시 지역 주민

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고창군 지역 설문은 2001년 8월중에 실시했으며 고창읍을 포함한 14개 면 중에서 고창읍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얻어 조사를 실시했으며,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대산면 등 다섯 읍면(邑面)을 순회하며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1명이 직접 설문했다.

수원시 지역은 2001년 9월중에 실시했으며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1명의 직접 설문과 수원여자대학 학생들의 협조를 통한 설문을 실시했다. 그 이유는 수원시가 직접 설문하기에는 광범위해 표집에 한계가 있어 수원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통한 폭넓은 설문이 표집에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는 연구자의 판단에서이다. 수원지역 설문시 수원여자대학 학생들을 사전에 접촉해 설문이 다양한 지역, 계층, 연령 등이 고루 분포되도록 교육했다.

3. 분석 방법

본 설문에 앞서 예비설문을 실시하여 각 변인별 설문항목에 대한 안면타당도와 신뢰도(Cronbach's α) 검증을 실시하여 신뢰도(α)가 0.5 이상인 문항을 취했으며 그 이하인 문항은 수정·보완했고 통계적 유의도는 5%로 했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WIN/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적용된 분석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으로는 조사대상자의 빈도, 백분율, 평균을 조사했고, 종속변수의 하위영역과 지역간 지역사회친밀도 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실시했다.

또한, 변수에 따른 농촌과 도시간 지역사회친밀도 비교와 구간 차이검증은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했으며 독립변수 구간간 차이검증은 LSD 검증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친밀도에 영향을 주는 제 변인간의 관계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알아봤고, 지역사회 친밀도 분석에 투입된 제 변인들이

어느 정도 설명력을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회분석을 실시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농촌과 도시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본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주민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농촌지역에는 남자가 71.1%인데 반해, 도시지역에서는 여자가 72%로 상반되는 수치를 보였다. 연령은 농촌지역은 연령대별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도시지역은 40대 이하가 83.2%로 주로 젊은층이 많이 조사됐다. 종교는 농촌지역은 불교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기독교였는데, 도시지역은 기독교가 가장 많고, 다음이 천주교로 나타났다. 농촌에서는 거의 절반이상이 종교가 없었다. 교육수준은 농촌지역은 67.6%가 고졸

<표 2> 연구대상 지역주민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농 촌		도 시		계 빈도(%)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101	71.1	40	28.0	141(49.5)
	여	41	28.9	103	72.0	144(50.5)
연 령	30세 미만	28	19.7	74	51.7	102(35.8)
	30~40세	47	33.1	45	31.5	92(32.3)
	41~50세	34	23.9	18	12.6	52(18.2)
	51세 이상	33	23.2	6	4.2	39(13.7)
종 교	기 독 교	22	16.2	58	40.6	81(28.4)
	불 교	44	31.0	19	13.3	63(22.1)
	천 주 교	1	0.7	21	14.7	22(7.7)
	없 음	74	52.1	45	31.5	119(41.8)
결혼상태	기 혼	109	76.8	73	51.0	182(63.9)
	미혼 및 기타	33	23.2	70	49.0	103(36.1)
거주기간	0~10년	30	21.1	75	52.4	105(36.8)
	11~20년	29	20.4	32	22.4	61(21.4)
	21~30	23	16.2	23	16.1	46(16.1)
	31년 이상	60	42.3	13	9.1	73(25.6)
교육수준	무 학	5	3.5	0	0	5(1.8)
	초 교 졸	16	11.3	1	0.7	17(6.0)
	중학교졸	25	17.6	5	3.5	30(10.5)
	고등학교졸	75	52.8	48	33.6	123(43.2)
	전문대졸	13	9.2	60	42.0	73(25.6)
	대졸이상	8	5.6	29	20.3	37(13.0)
주택소유 형태	자가	101	71.1	83	58.0	184(64.6)
	임대 및 기타	41	28.9	60	42.0	101(35.4)

<표 2 계속>

연구대상 지역주민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농 촌		도 시		계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도(%)
직 업	무 직	5	3.5	1	0.7	6(2.1)
	주 부	15	10.6	6	4.2	21(7.4)
	학 생	2	1.4	35	24.5	37(13.0)
	농림축수산업	58	40.8	0	0	58(20.4)
	중소자영업	13	9.2	6	4.2	19(6.7)
	생산노무기술직	8	5.6	9	6.3	17(6.0)
	사무관리직	8	5.6	38	26.6	46(16.1)
	전문직/자유직	14	9.9	31	21.7	45(15.8)
	공 무 원	9	6.3	10	7.0	19(6.7)
	기 타	10	7.0	7	4.9	17(6.0)
주택유형	아 파 트	16	11.3	65	45.5	81(28.4)
	연립주택	2	1.4	25	17.5	27(9.5)
	단독주택	104	73.2	45	31.5	149(52.3)
	기 타	20	14.1	8	5.5	28(9.9)
자 녀 수	없 음	34	23.9	75	52.4	109(38.2)
	1~2명	54	38.0	63	44.1	117(41.1)
	3~4명	39	27.5	5	3.5	44(15.4)
	5명 이상	15	10.6	0	0	15(5.3)
직장위치	거주지내	130	91.5	98	68.5	228(80.0)
	거주지외	12	8.5	45	31.5	57(20.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6	46.5	73	51.0	139(48.8)
	100~150만원	43	30.3	35	24.5	78(27.4)
	150~200만원	20	14.1	16	11.2	36(12.6)
	200~250만원	11	7.7	7	4.9	18(6.3)
	250만원 이상	2	1.4	12	8.4	14(4.9)
계		142	100.0%	143	100.0%	285 (100.0%)

* 소득수준*에서 농촌에서는 주로 농가소득 월평균이 조사됐고 도시에서는 대부분 개인소득월평균(주부와 학생인 경우는 가계소득으로 조사되기도 했음)이 조사되어 소득의 절대적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개인소득과 가계소득의 명확한 구분없이 조사된 점은 연구자의 실수로 판단된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가계소득의 평균을, 도시에서는 개인소득의 평균이라고 판단하면 크게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인 반면, 도시지역은 96.9%가 고졸 이상이였다. 주택의 자가 비율은 농촌은 71.1%, 도시는 58.0%로 나타났다. 직업의 분포를 보면, 농촌지역은 40.8%가 농림축수산업을, 도시지역은 53.3%가 사무직으로 나타났다.

2. 지역사회 친밀도와 영역별 t-test

농촌과 도시의 지역사회 친밀도 t-test는 살펴보면, 첫 번째, 사회적 결합에서 농촌지역주민은 도시지역주민보다 친척수, 지인수가 많다고

느꼈으며, 도시지역주민은 가족수, 친구수, 외지 인수가 농촌지역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많다고 느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참여를 보면 농촌주민은 도시주민보다 개인적 모임에서 도시주민은 공적 모임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변인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세 번째, 사회적 신뢰는 농촌주민이 지역정부에 대한 신뢰와 이웃에 대한 신뢰 정도가 도시주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지역경제활동을 보면, 농촌주민은 외지구매와 소득만족에서 높았고, 도시주민은 직업만족에서 더 높았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다섯 번째, 사회문화 및 환경 영역을 보면, 농촌지역은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교통환경 변인에서 높게 나타났고, 도시지역은 교통환경 변인에서 농촌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의 <표 3>를 참고로 지역사회 친밀도를 보면,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만족도, 관심도, 이주시 아쉬움 정도 영역 그리고 전체 친밀도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선형발전모델에서 인구의 크기와 인구밀도가 증가할수록 지역사회 친밀도는 감소한다는 가설과 일치하는 논거이다.

<표 3> 지역사회 친밀도에 대한 t-test

구	분	농 촌	도 시	t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	평 균	10.70	9.89	2.975**
	표준편차	2.27	2.32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평 균	10.20	8.74	5.241**
	표준편차	2.34	2.35	
이주시 아쉬움 정도	평 균	9.87	8.24	4.958**
	표준편차	3.03	2.49	
지역사회 친밀도	평 균	30.77	26.88	5.44**
	표준편차	6.08	6.01	

*: P<.05 **: P<.01

3. 개인의 특성변인과 지역사회 친밀도

사회적 지위 변인(개인특성변인)과 지역별 지역사회 친밀도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서 두 지역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농촌에서 그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 결혼상태에서는 두 지역 모두 기혼이 미혼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직업형태에서는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직이 비농업직보다 높았고, 도시지역에서는 사무직이 비사무직보다 약간 높았다. 주택소유형태를 보면, 자가인 경우가 임대 및 기타보다 두 지역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도시에서 그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직장위치에 따른 친밀도는 농촌에서는 거주지 내가 약간 높았는데 반해 도시에서는 거주지 외가 더 높게 나타났다. 종교형태별 차이를 보면, 농촌지역은 불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무교, 기독교 순이었으며 도시에서도 불교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천주교, 기독교 순으로 두 지역 모두 불교신자가 지역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에서는 농촌은 고졸, 전문대졸 이상, 중졸 이하 순이었는데 반해 도시는 학력이 높을수록 친밀도도 높게 나타났다. 주택형태는 두 지역 모두 아파트가 가장 높아 아파트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 수 있었다. 자녀수는 두 지역 모두 자녀가 많은 쪽이 친밀도도 높게 나타났다. 소득측면을 보면, 농촌은 소득이 높은 쪽이 친밀도도 높았으나, 도시에서는 150~200만원이 가장 낮고 200만원 이상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소득기준에서 도시 중위층의 지역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친밀도를 보면, 보통 연령이 높을수록 친밀도도 증가하는 반면, 도시의 51세 이상 고령층은 최하위를 나타내 도시지역 노인들의 도시생활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알 수 있다. 마지막 거주기간을 보면, 두 지역 모두 거주기간이 길수록 친밀도도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도시지역에서 그 차이는 뚜렷

하게 나타났다.

4. 제 변인간 상관관계 분석

지역별 지역사회 친밀도와 제 변인간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상관관계를 통해 알아봤는데, 먼저 사회적 결합 변인은 모두 도시지역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 지역사회 참여는 개인 모임, 공적 모임 모두 농촌지역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역사회 신뢰에서는 지방정부신뢰는 농촌이, 이웃간 신뢰는 도시지역이 높았다. 지역경제활동 변인들 중에서 외지구매는 도시지역에서 친밀도와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직업만족과 소득만족은 농촌에

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사회문화 및 환경 변인들 중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은 두 지역 모두 높게 나타나 지역 전통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밝혔고, 교육환경은 도시지역에서, 교통환경은 농촌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 거주기간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상관관계를 보면, 두 지역 모두 거주기간이 예상했던 대로 친밀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농촌지역에서는 소득수준이, 도시에서는 소득수준, 연령, 종교, 주택소유가 친밀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농촌과 도시 각각 개인별 특성변인과 지역사회 친밀도간의 상관관계는 아래의 <표 4, 5>와 같다.

<표 4> 농촌지역의 거주기간 및 사회적 지위와 지역사회 친밀도 상관관계

구 분	지역사회 친밀도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P<.05	P<.01
거주기간	.22**	종교	친구수, 지인수, 외지인수(-), 교육기간(-), 성별(-), 주택소유, 자녀수
교육기간	.11	이웃신뢰, 소득만족	지방정부신뢰, 직업만족, 문화유산, 소득, 연령(-), 거주기간(-), 자녀수(-)
소 득	.24**	문화유산	교육기간
연 령	.15	성별, 외지구매(-)	친구수, 교육(-), 거주기간, 결혼, 자녀수
성 별	.20*	이웃접촉, 외지구매, 주택소유	친구수, 지인수, 개인모임, 공적모임
종 교	-.01	지역정부신뢰(-)	자녀수
결 혼	.11		개인모임, 자녀수
자 녀 수	.19*	외지인수(-), 공적모임, 이웃신뢰, 외지구매(-), 교육기간(-)	친구수, 친척수, 지인수, 이웃접촉, 교육환경, 소득
주택소유	.08		자녀수, 직장위치
직장위치	.01	없음	없음

*: P<.05 **: P<.01

* 성별 0=여성, 1=남성; 종교 0=무종교, 1=유종교; 주택소유 0=임대, 1=자가; 직장위치 0=거주지외, 1=거주지내

〈표 5〉 도시지역의 거주기간 및 사회적 지위와 지역사회 친밀도 상관관계

구 분	지역사회 친밀도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P<.05	P<.01
거주기간	.31**	문화유산, 성별, 자녀수, 소득, 직장위치(-)	가족수, 친구수, 친척수, 지인수, 이웃접촉, 외지인수(-), 개인모임, 공적모임, 이웃신포
교육기간	.12	이웃접촉(-), 소득만족(-), 교육환경, 결혼, 자녀수	
소득	.21**	개인모임, 거주기간	이웃접촉, 공적모임, 직업만족, 소득만족, 연령, 성별, 결혼, 자녀수
연령	.24**	교육환경, 교통환경	이웃접촉, 공적모임, 지방정부신포, 이웃신포, 외지구매(-), 소득, 거주기간, 성별, 결혼, 자녀수
성별	.03		이웃접촉, 개인모임, 공적모임, 교육기간, 소득, 연령, 결혼, 자녀수
종교	.07*	지방정부신포, 직업만족	
결혼	.10	친구수(-), 소득만족, 교육환경	이웃접촉, 공적모임, 외지구매(-), 소득, 연령, 성별, 자녀수
자녀수	.19*	지인수, 소득만족, 교육환경, 소득, 연령, 성별, 결혼, 거주기간	이웃접촉, 공적모임, 외지구매(-)
주택소유	.34**	이웃접촉, 문화유산	가족수, 친구수, 친척수, 지인수, 외지인수(-), 개인모임, 공적모임, 거주기간
직장위치	-.09	가족수(-), 외지구매(-), 거주기간(-)	소득만족, 거주기간

*: P<.05 **: P<.01

5. 지역사회 친밀도와 제 변인간 회귀분석

농촌과 도시지역의 마지막 비교인 지역사회 친밀도 회귀분석을 위해 제 변인들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독립변인 가운데 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들은 농촌지역에서는 6개 변인이, 도시지역에서는 8개 변인이 선정되었다. 농촌지역의 6개 독립변인이 지역사회 친밀도를 설명하는 전체 변량은 48.9%이었고, 도시지역 8개 변수는

62.9%로 도시지역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각 변인별로 친밀도의 설명력을 보면, 농촌지역은 문화유산(21.5%)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직업만족이 11.4%, 공적모임이 7.6%, 거주기간이 3.4%, 지방정부 신포가 3.0%, 소득이 2.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지역은 지인수가 3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유산이 14.8%, 거주기간이 5.5%, 교육환경이 4.6%, 외지인수가 2.3%, 교통환경이 1.9%, 친척수가 1.7%, 종교가 1.4%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6〉 지역별 지역사회 친밀도의 다중회귀분석

지역	변인	다중상관 계수(R)	다중결정 계수(R ²)	수정결정 계수(R ²)	R ² 변화	표본회귀 계수(B)	표준회귀 계수(β)	t 값
농촌	문화유산	.470	.221	.215	.215	2.285	.321	5.048**
	직업만족	.581	.338	.329	.114	1.437	.260	4.046**
	공적모임	.647	.418	.405	.076	1.397	.260	4.243**
	거주기간	.675	.455	.439	.034	6.637E-02	.210	3.450**
	지방정부신뢰	.698	.488	.469	.030	1.126	.182	2.900**
	소속	.715	.511	.489	.020	.925	.155	2.518*
	상수 (C)					6.520		3.106**
도시	지인수	.558	.311	.306	.306	.934	.170	2.546*
	문화유산	.679	.461	.454	.148	2.482	.355	6.310**
	거주기간	.720	.519	.509	.055	9.521E-02	.180	2.873**
	교육환경	.753	.568	.555	.046	1.303	.198	3.460**
	외지인수	.770	.593	.578	.023	-.759	-.138	-2.275*
	종교	.781	.610	.593	.014	1.946	.151	2.836**
	친척수	.793	.629	.610	.017	.783	.168	2.850**
	교통환경 상수 (C)	.801	.641	.629	.019	.628	.119	2.177*
					8.829		3.816**	

*: P<.05 **: P<.01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농촌과 도시지역 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친밀 정도는 두 지역 모두 문화유산과 거주지역 변수가 주요한 설명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직업만족과 공적인 모임 변수 등이 주요한 영향을 주며, 도시에서는 지인수가 특히 높았으며 교육환경, 종교, 친척수 등이 친밀도에 영향을 주며 외지인수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농촌과 도시지역 전체 지역사회 친밀도와 제 변인간 회귀분석

농촌과 도시지역 구분 없이 전체 지역사회 친밀도 회귀분석을 위해 제 변인들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농촌과 도시도 하나의 지역 구별 가변수로 전환하여 회귀분석 했는데 그 결과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독립변인

가운데 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들은 총 8개 변인이 선정되었다. 이 8개 독립변인이 지역사회 친밀도를 설명하는 전체 변량은 55.5%이었다. 각 변인별로 친밀도의 설명력을 보면, 지인수(27.5%)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문화유산이 15.4%, 거주기간이 3.7%, 지방정부 신뢰가 3.2%, 교통환경이 1.7%, 직업만족이 1.4%, 가족수가 1.5%, 이웃접촉이 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지역사회 친밀도는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지, 지역문화유산에 대해 얼마나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 하는 변수 등이 친밀도 영향에 주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에 대한 신뢰 정도, 교통환경, 직업에 대한 만족 정도, 가족수, 이웃간의 접촉도 주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본 연구

<표 7> 농촌과 도시 전체 지역사회 친밀도와 제변인간 다중회귀분석

변 인	다중상관 계수(R)	다중결정 계수(R ²)	수정결정 계수(R ²)	R ² 변화	표본회귀 계수(B)	표준회귀 계수(β)	t 값
지 인 수	.527	.277	.275	.275	1.158	.196	3.763**
문 화 유 산	.658	.433	.429	.154	1.158	.326	7.560**
거 주 기 간	.687	.472	.466	.037	2.377	.198	4.477**
지 방정부신뢰	.711	.505	.498	.032	7.116E-02	.139	3.278**
교 통 환 경	.724	.524	.515	.017	1.050	.133	3.248**
직 업 만 족	.734	.539	.529	.014	.772	.123	2.955**
가 족 수	.745	.556	.544	.015	.888	.143	3.466**
이 웃 간 접 촉	.753	.567	.555	.011	.726	.133	2.734**
상 수 (C)					4.046		2.189*

*: P<.05 **: P<.01

* 지역변수의 더미변수는 농촌은 0, 도시는 1로 함.

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밝힌대로 지역의 크기와 인구밀도에 따른 지역사회 친밀도 변화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선행발전 모델보다는 거주기간 및 개인의 특성변인 그리고 기타 추가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이 더 높음을 이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촌과 도시도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하여 전체지역에 대한 지역사회 친밀도 다중회귀분석 결과, 총 8개의 변인, 지인수, 문화유산, 거주기간, 지방정부 신뢰, 교통환경, 직업만족, 가족수, 이웃간 접촉 등이 전체 변량의 55.5%를 설명했고, 그 중 지인수와 문화유산이 각각 27.5%, 15.4%의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반면, 농촌과 도시 지역변수는 지역사회 친밀도를 설명하는데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발전 변인보다 체제모델 변인이 지역사회 친밀도를 더 잘 설명한다는 기존 연구자들의 주장을 지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지역사회 친밀도에 대한 분석결과와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을 토대로 농촌과 도시 지역주민들, 지역사회 개발과 지방자치제의 지

역활성화, 지역주민의 참여와 동원 등의 문제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여자들은 남 자들에 비해 지역에 대한 친밀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서구의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로 우리나라 농촌여성의 농촌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농촌은 점점 고령화, 부녀화 되어감에 따라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점에서 농촌여성문제는 지역전체의 문제로 파악해야 하며 농촌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어야 하겠다.

둘째, 농촌지역에서 농업인은 비농업인에 비해 지역사회 친밀도는 약간 높지만 하부 영역인 만족도와 관심도 영역은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같은 농촌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비농업인보다 생활면에서 더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며 향후 같은 지역내(정착의지는 더 높기 때문) 직업이동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농촌에서의 농업인에 대한 상대적 배려가 더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도시지역에서는 직장의 위치가 타지인 사람이 거주지 내인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과거 직장의 위치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것과는 달리 지금은 직장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자신이 선호하는 거주지를 선택하며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제는 지역도 하나의 소비의 대상처럼 선택적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 지역개발과 지역마케팅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

넷째, 주택형태와 지역사회 친밀도를 보면, 농촌과 도시 모두 아파트 거주자가 친밀도가 가장 높았다. 물론 아파트 거주자가 어떤 개인적 특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통계 결과만으로 보면 아파트의 증가,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증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농촌마을의 공동(空洞)화 보다는 새로운 정주공간으로써 어느 정도 단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소득수준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월평균 소득이 150~200백만 원인 중상의 소득층이 농촌에서는 가장 높은 친밀도를 보인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친밀도를 보였다. 이것은 농촌에서는 어느 정도 소득이 지지되면 농촌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작용하는 데 비해 도시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의향이 강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정주의지는 소득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을 보면, 농촌에서는 연령이 높은 쪽이 친밀도도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 도시지역은 50세 이전까지는 높게 나타나다가 51세 이상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도시에서의 고령자들이 도시생활에 대한 부적응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지역사회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들의 설명력을 지역별로 알아보면, 농촌지역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이 21.5%의 설명력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직업만족, 공격적모임, 거주기간 등의 순이었고, 농촌지역은 지인수가 30.6%의 설명력으로 가장 높고, 다음

으로 문화유산, 거주기간, 교육환경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문화유산과 거주기간이 높게 나타났다. 문화유산은 서구에서는 연구되지 않는 변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에서는 첫 번째로, 도시에서는 두 번째로 가장 강력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전통과 문화유산은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며 지역에 대한 애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지방자치체 이후 각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지역문화행사나 축제가 해당지역에 대한 문화와 전통을 알려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갖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돼 긍정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거주기간은 선행연구에서도 가장 강력한 변수인데 이 연구에서 다시 한 번 증명하게 되었다.

지역변인을 더한 전체 지역사회 친밀도 회귀분석에서는 지인수가 가장 강력한 변수로 나타났고 앞서 설명한 문화유산과 거주기간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과 도시를 나타내는 지역변수의 설명력은 체제모델 변인의 설명력보다 극히 낮아 지역사회 친밀도는 체제모델이 더 타당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VI. 참고 문헌

1. 강대기, 2001,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아카넷.
2. 고순철, 1992, 제주도 농촌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3. 고창군, 2000, 제40회 통계연보 2000.
4. 김경준, 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5. 김일철, 1998, 지역사회와 인간생활, 서울대학교출판부.
6. 박준식, 2000, 시민사회, 「'99춘천리포트, 춘천의 삶과 꿈」,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

- 편, 나남출판사.
7. 수원시, 2000, 통계연보 2000.
 8. 안청시 외(역), 1994, Putnam, Robert D.(저)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9. 윤준상·최창욱(1998), 지역사회주민의 지역 사회 친밀도와 관련 변인, 한국농촌지도학회 5(1):113-122.
 10. 오혜경, 1998, 사회조사방법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1. 이재열, 199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계간 사상(여름호):65-93.
 12. 통계청, 2000, 한국의 사회지표 2000.
 13. 최창욱, 1996, 농촌주민의 지역사회친밀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4. 최창욱·김성수·윤준상·박덕병, 1997, 지역사회 친밀도에 관한 이론적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 4(1):317-327.
 15. 한내창·이성전, 1999, 공동체 친밀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사회학회 동계대회발표문.
 16. 한도현, 1999, 「지역사회와 생활사회학: 김일철 교수의 지역사회론과 한국사회 분석」, 『한국의 사회구조와 지역사회』(김일철 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17. 한도현, 2000, 기업형농민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관계, 한국농촌사회학회 발표논문.
 18. Beggs, et al., 1996, Community Attachment in a Rural Settings : A Refinement and Empirical Test of the Systemic Model, Rural Sociology, 61(5):407-426.
 19. Bell, Colin & Newby, Howard, 1972, Community Studie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20. Brown, Samuel R., 1990, Community attachment in a Racially Integrated Neighborhood, Pennsylvania : The Univ. of Pennsylvania Press, Thesis.
 21. Brown, Ralph B., 1993, Rural Satisfaction and Attachment in Mass Consumer Society, Rural Sociology, 58(31):387-403.
 22. Brown, Ralph B., Geertesen, H. Reed, Krannich, Richard S., 1989, Community Satisfac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a Boomtown : A Longitudinal Analysis, Rural Sociology, 54(4):568-586.
 23. Goudy, Willis J., 1990, Community in a Rural Region, Rural Sociology 55(2):178-198.
 24. Kasarda, John D. & Moris Janowitz, 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y Review 39(june):328-339.
 25. Liu, Qiaoming Amy, Ryan, Vernon, Aurbach, Herbert, Besser, Terry, 1998, The Influence of local Church Participation on Rural Community Attachment, Rural Sociology 63(3):432-450.
 26. O'Brien, David J. Edward W. Hassinger, 1992, Community attachment Among Leaders in Five Rural Communities, Rural Sociology, 57(4)
 27. O'Brien, David J., Hassinger, Edward W., Dershem, Larry, 1994, Community Attachment and Depression Among Residents in Two Rural Midwestern Community, Rural Sociology, 59(2):255-265.
 28. Sampson, Robert J., 1988, "Local Friendship Ties and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 Multilevel Systemic Mode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766-79.
 29. Stinner, William F., 1990, Community Size, Individual Social Position, and Community Attachment, Rural Sociology 55(4):495-521.
 30. UN(1971), Popular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Emerging Trends in Community development,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New York.
- (2002년 4월 22일 접수, 심사 후 수정 보완)